

종합·해설

독자후보론 논란·정군환 제명·지역위원장 선임 갈등

민주 '내홍'... 정계개편 진원지 되나

민주당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선 독자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당이 정군환 부대표를 제명 처분하면서 정 부대표까지 강력반발하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또 이달말로 예정된 지역위원장 선임을 놓고도 당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손학규 '대권 신경전' 유력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참정치 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계개편의 촉발지가 열린우리당이 아닌 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정군환 민주당 부대표는 국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군환 부대표는 "자신에 대한 '당원제명' 통보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정계개편을 앞둔 민주당의 방향과 연결되는 문제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전국의 중도 세력을 대통합해야 함에도 한화갑 대표는 고건 전 총리를 적대시하면서 신당을 추구하고 있다"며 "한 대표의 이런 구상은 민주당을 죽임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한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정군환 부대표 측 지지자 800여 명은 23일 민주당 중앙당사를 향한 방화할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당의 내부 문제가 마치 한화갑 대표와 정군환 부대표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군환 부대표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확대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 부대표 등 고건 지지세력이 정계개편을 앞두고 노선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지난 대표단 회의에서 거론된 '민주당 독자 후보론'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신중식 의원 등 일부 의원은 독자후보론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반해, 최인기 의원 등은 외연 확대 및 내부 세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배기운 사무총장 등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이 독자후보론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화갑 대표의 대권 프로젝트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공적인 지역위원장 선임 문제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전국 시도당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24일 조직강화특별위를 열고 적합한 인물 물색에 나서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결정,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장을 공적으로 둔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與 기간당원제 폐지 파장 예고

당원 조직 대폭 물갈이 불보듯 정계개편·당진로 가늠 변수될 듯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혁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걸어온 기간당원제를 마침내 폐지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불법과 편법 당원모집과 폐쇄적 공천구조로 얼룩지면서 '달린 정당'이라는 오명을 낳아온 '정치실형'에 종지부가 찍힌 셈이다.

물론 논란의 핵심인 공천문제에는 손대지 않아 제도의 근간 자체가 뒤바뀌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당의 밀집된 당원 조직에 근본적인 새관짜기가 시도된다는 점에서 당의 진로와 체제정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신당론과 당사수론이 맞서고 있는 당내 정계개편 논의에 의미있는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가 2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은 '기초당원제' 도입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기초당원제는 기간당원제의 명칭을 바꾼 것이지만 핵심적 대목은 '공로당원'에 있다. 전체 당원의 15% 범위 내에서 당원협의회가 특별히 공로를 인정한 자에게 기초당원 자격을 주도할 것.

이에 따라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당원들을 중심으로 공로당원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당원제 폐지는 논란이 돼온 상향식 공천제도에는 당장 이렇다

할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더욱이 100% 완전국민경선제로 확정돼 있는 대선후보 경선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최대 이슈인 정계개편 논의와 그에 따른 당의 진로를 가능하게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기초당원제 도입에 따라 현재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당원조직이 대폭 물갈이되고, 이는 대외적 이미지와 중앙위원회 구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치면서 당의 의사결정구조가 지금과는 판이해질 것이라 예기된다.

특히 당 주변에서는 과거 민주당 시절부터 당원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공로당원 자격으로 대거 '수혈'되면서 통합신당론에 무게감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회창 전 총재 정계복귀 하려면 명분·광적 지지·당내 여론 충족돼야"

홍준표 의원 주장



이회창 전 총재가 정계복귀 하려면 명분·광적 지지·당내 여론 충족돼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사진)은 22일 이회창 전 총재의 정계복귀 전망에 대해 명분과 광적인 지지, 당내 일선 여론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당 정책본부장을 지낸 홍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이 전 총재는 제가 8년간 총재로 모셨던 분

을 내걸었던 것 처럼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DJ가 소위 호남지역의 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 처럼 명분과 함께 광적인 지지계층이 있을 때 복귀가 가능하다"며 "여기

에다 당내 콘센스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제시한 3가지 전제조건은 어느 것 하나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전 총재의 정계복귀가 쉽지 않으며, 복귀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하기 위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1천297평 규모의 땅을 계약한 것과 관련,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주택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나게 하고서 자신은 퇴임 후에 1천300평 규모의 대저택에 궁궐을 짓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소액 정치자금 기부 확산

울 광주·전남시 1,216명 1억1,354만원 기탁

10만원 이하 소액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 광주·전남에서도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

자금 기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

난해 전남지역에서는 1천267명이 1억1천561만2천원을, 광주에선 171명이 1천700만원의 소액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했다.

이같은 금액은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전국 기탁금 20억3천900여만원의 6.5%에 해당하는 것이다.

올들어 현재까지는 전남에서 1천96명이 1억154만원을, 광주에서는

120명이 1천2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액은 10만원 이하의 소액기탁자가 대다수(99%)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정기탁제가 없어지고 지난 2004년 3월 10만원 이하 소액 기탁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탁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영화안내 (Movie Guide) section with a colorful background and text about movie listings.

메가박스 (MegaBox) advertisement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아정걸립 (Movie) advertisement featuring a couple and promotional text.

아정걸립 (Movie) advertisement featuring a couple and promotional text.

현대직업전문학교 (Modern Vocational College) advertisement listing courses like accounting and IT.

공무원쉬운것! (Public Service Exam Easy!)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2007 국가직/지방직 대비 공무원 (2007 National/Local Government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ANTIQUE FURNITURE GAUDEDING (Antique Furniture Gaudeing) advertisement for a furniture sale.